



##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

589.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균형이 없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수 없다.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는 작동하고 하나는 반동하는 두 힘 사이에서 발생한다. 작용과 반작용의 힘이 같을 때 생기는 안정 상태를 균형이라고 한다.

자연계 전체가 균형 안에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의 균형 안에 있다. 고기압이 작동하고 내리 누르는 만큼 저기압은 반동하고 저항한다. 더위와 추위, 빛과 어둠, 건조함과 습기 사이에도 균형이 있어 그 중간 조건이 균형이 된다. 자연의 세 영역인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도 균형이 있다. 균형이 없다면 그들 세계에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어디에나 일종의 작용하는 힘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반작용의 힘이 있는 것이다.

(2) 모든 현상 또는 효과는 균형 안에서 생긴다. 즉, 한 힘이 작용하면 다른 힘은 그 힘이 자기에게 작용하도록 허용하는 데서, 또는 한 힘이 적극적으로 흘러들면 다른 쪽은 그에 알맞게 받아들이거나 양보하는 데서

생긴다.

자연계에서는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것을 힘 또는 기운(conatus, 노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것을 생명 또는 의지(意志)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생명은 살아있는 힘이며 의지는 살아 있는 기운이다. 그리고 그 균형을 자유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영적인 균형, 즉 자유는 선이 한쪽에서 작동하고 악이 다른 쪽에서 반동하는 가운데, 아니면 악이 한쪽에서 작동하고 선이 다른 쪽에서 반동하는 가운데 생기고 유지된다.

(3) 선한 사람에게는 선이 작동하고 악이 반동하는 가운데 균형이 있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악이 작동하고 선이 반동하는 가운데 균형이 있다. 영적 균형이 선과 악 사이에 있는 것은, 사람의 삶 전체가 선과 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는 선과 악을 수용하는 그릇이다. 진리와 허위 사이에도 균형이 있지만 이것은 선과 악 사이의 균형에 의존한다. 진리와 허위 사이의 균형은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과 같다. 빛과 어둠은 그 안에 열과 냉기가 있어야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빛과 어둠 자체는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고 열의 작용에 매체가 될 뿐이다. 이것은 겨울에나 봄에나 빛과 어둠은 똑같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리와 허위를 빛과 어둠에 비유하는 것은 상응으로 인한 것이다. 진리는 빛에, 허위는 어둠에, 그리고 열은 사랑에서 나오는 선에 상응한다. 실제로 영적 빛은 진리이며 영적 어둠은 허위이고 영적 열은 사랑의 선인 것이다. 천국의 빛과 열을 다룬 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다(126-140항).

590.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항구적인 균형이 있다. 지옥에서는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는 기운(노력)이 발산되어 올라오고, 천국에서는 선을 행하려는 기운이 끊임없이 발산되어 내려간다. 그 사이의 균형 속에 중간영계

가 있다. 그곳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지역이다(421-431행). 중간영계가 균형 속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죽은 뒤에 중간 영계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 세상에서와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곳에 완벽한 균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것과 똑같은 자유의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589행 참조). 그 자유 속에서 교통되는 애정과 생각들을 보고 천사는 그 영의 자유가 어떤 종류인지 안다. 또 영이 걷는 길을 보면 천사는 그 영의 자유를 눈으로 볼 수 있다. 선한 영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지만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는다. 길들은 중간영계에 실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길'은 선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반대 의미로 악으로 이끄는 허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말씀에 나오는 '간다, 걷는다, 여행한다'는 것은 삶의 과정을 의미한다. 나는 허락하심에 의해 이 길들을 보았으며, 영들이 그들의 애정과 생각에 맞는 길을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도 보았다.

591. 악은 끊임없이 지옥에서 발산되어 올라가고 선은 끊임없이 천국에서 발산되어 내려간다. 왜냐하면 모든 영들은 영적 영향권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영향권은 애정과 애정에서 나온 생각의 생명으로부터 물결처럼 밀려나와 흘러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모든 개인에게서 흘러나오듯 또한 모든 천국 공동체와 지옥 공동체에서 흘러나오고, 따라서 모든 천국과 모든 지옥의 모든 사람에게서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천국에서 선이 나오는 것은 그곳의 모든 사람이 선 안에 있기 때문이고 지옥에서 악이 나오는 것은 그곳의 모든 사람이 악 안에 있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나오는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자기 본성에서 떠나 있고 주님의 본성, 즉 선함 자체 안에 거하기 때

문이다. 반면, 지옥의 모든 영들은 그들의 본성 안에 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은 악 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본성은 지옥이다. 그렇다면, 천국의 천사들에게 유지되는 균형이나 지옥 영들에게 유지되는 균형은 중간영계에 있는 균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천국 천사들의 균형은 그들이 선 안에 있기를 바라는 정도와 세상에서 선 안에 살았던 정도에, 즉 그들이 악을 거부한 정도에 달려 있다. 반면 지옥 영들의 균형은 그들이 악 안에 있기를 바라는 정도와 세상에서 악하게 산 정도에, 즉 마음과 영으로 선을 거부한 정도에 달려 있다.

592. 주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 다스리지 않으시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균형이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 전체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자연계와 영계에 있는 모든 것은 균형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누구나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한쪽이 무게를 가하는데 상대방에서 전혀 저항하지 않는다면, 양쪽 다 파괴되지 않겠는가? 영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선이 악에 반작용을 가하며 끊임없이 그 폭동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신성 자체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은 둘 다 멸망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신성 자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천사, 영,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본성은 악 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59항). 따라서 천사도 영도 그 본성은 지옥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쉬지 않고 내뿜는 악에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게다가 모든 지옥은 하나로 움직인다. 지옥에 있는 모든 악은 천국의 모든 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신성만이, 그 수없이 많은 지옥이 일치하여 천국



과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전부 막으실 수 있다. 그 신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나온다.

593.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은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효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 수효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된다. 그 전체를 다 알고 파악하고 정확히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은 어떤 천사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고, 치우치는 곳이 어딘지 전부 보실 수 있기 때문이다. 천사는 자기 근처만을 볼 수 있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 알지 못한다.

594. 천국과 지옥 안의 모든 것은 각 개인이 개별적 균형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명한 내용들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천국의 모든 공동체들은 그들의 종류와 질에 따라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 지옥의 모든 공동체들은 그들의 악의 종류와 질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또 천국의 모든 공동체 밑에는 그에 반대되게 상응하는 지옥 공동체가 있으며 이 반대되는 상응이 균형을 만든다. 따라서 주님은 어느 천국 공동체 밑에 있는 지옥 공동체든지 세력이 우세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섭리하신다. 어떤 지옥 공동체가 우세해지기 시작하면 즉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지하여 다시 정확한 균형 관계로 되돌리신다. 그 방법들 중 아주 일부만 언급하겠다. 주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는 것과 관련된 방법도 있고, 하나나 그 이상의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들과 더 밀접한 교통과 결합으로 묶는 방법도 있다. 넘치는 지옥 영들을 사막으로 쫓아내는 방법, 한 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영들을 옮기는 방법, 지옥 안의 영들을 재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또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그중 일부는 지옥을 더 두껍고 무거운 덮개로 봉쇄하는 것과 관련되고 또 일부는 지옥을 더 깊이 내려보내는 것에 관련된다. 이밖에도 그 지옥 위에 있는 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방법이 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만 어디에나 선과 악 사이의 균형이 있게 하시고 따라서 천국과 지옥 사이의 균형을 이루신다는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95.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옥들은 끊임없이 천국을 공격하고 파괴하려 애쓰며, 주님은 끊임없이 천국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다. 천국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본성의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막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 안에 그들을 붙들어 두시는 것이다. 나는 가끔 허락하심에 의해 지옥에서 방사되는 영향권을 지각할 수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주님의 신성과 천국을 파괴하려는 기세로만 이루어진 영향권이었다. 때로 나는 어떤 지옥의 파괴적인 기세가 돌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천국은 결코 지옥을 공격하지 않는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의 영향권은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항구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옥의 폭동을 진압하시고 그들이 서로를 한계 이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잔인함에 제재를 가하시는 것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될 수 없는 것은, 그들 모두가 악 안에 살고 주님의 신성을 적대시하기 때문이다.

596. 천국은 천적 나라, 영적 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로 구분되어 있다 (20-28항). 마찬가지로 지옥도 두 나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천적 나라에 반대되고 하나는 영적 나라에 반대된다. 천적 나라에 반대되는 지옥은

서쪽 방위에 있고 그 안의 영들은 악마라고 불린다. 영적 나라에 반대되는 지옥은 북쪽과 남쪽 방위에 있고 그 안의 영들은 악령이라고 불린다. 천적 나라에 있는 모두는 주님을 향한 사랑 속에 살며, 그 나라에 반대되는 지옥의 모두는 자기사랑 속에 산다. 영적 나라에 있는 모두는 이웃사랑 속에 살고, 그 나라에 반대되는 지옥의 모두는 세상사랑 속에 산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주님사랑과 자기사랑은 서로 정반대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웃사랑과 세상사랑도 서로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천적 나라에 반대되는 지옥으로부터 어떤 것도 영적 나라에 넘어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섭리하신다. 만일 그렇게 되면 영적 나라는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앞의 578-579항에서 밝혔다. 이 두 가지 일반적 균형은 주께서 항상 유지되게 하시는 것이다.